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격월로 발행되었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보 '빛을 주는 실로암'은
2019년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분기별(1월,4월,7월,10월) 발행됩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재활복지를 선도하는 국내 최대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입니다

vol. 141



빛을 주는
실로암
이웃을 내 몸 같이.

제호의 '빛'은 육안으로 보이는 빛을 넘어서
희망, 사랑, 행복을 뜻합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제호 격월호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9년 1월 25일 통권 141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최수린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880.0500 FAX 02.887.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기획홍보팀 02.880.0865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2275.6960

11+12
November December

Contents



04	포커스1 '희망을 쏘다'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양궁 시연회
06	포커스2 힙스터들이 모인 특별한 뮤직콘서트 '제3회 설리번 음악회'
08	포커스3 크리스마스의 기적 '행복한 크리스마스'
10	새소식 카페모아 몽골 칭겔테점 개소식
12	사랑니눔 설레임, 놀라움, 그것이 바로 '봉사의 맛'
14	해피스토리 2018년 11월~12월 사업 현장
18	미리보기 2019년 2월~2019년 3월 행사 및 광고
19	나눔플러스 2018년 11월~12월 후원 안내

설날 아침에

김종길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운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것들 잇몸에 돌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텐텐텐!
 올림픽 TV 중계를 통해서만
 접해왔던 양궁은 최근
 실내스포츠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다양한
 스포츠 영역 활동에서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에 실로암은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 양궁교실을
 운영하며,
 시각장애인 양궁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양궁교실 감독인 석동은 감독은“실로암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양궁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양궁을 알게 되고 양궁의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다. 시연회 선수로 참가한 시각장애인 문광식님은“양궁을 배우며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나의 모습에 놀랐고, 자신 있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시연회 내빈으로 서울장애인양궁협회 정미자 회장, 2008년 베이징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주현정 선수 등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前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주현경 선수는“시각장애인 양궁이 불가능이라 생각하였다. 이곳에 직접 와서 시각장애인이 양궁을 하는 모습을 보니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다. 이번 시각장애인 양궁시연회를 통해 많은 시각장애인에게 양궁종목이 대중화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다.

이번 시연회는 양궁이 비장애인들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저변확대에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희망을 쏘다’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양궁 시연회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대중화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양궁은 휠체어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칙이 일반 양궁과 같으며 장애인 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게 일반 규정으로 경쟁하는 종목입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16년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 양궁을 도입하여 현재 세계적인 양궁명장인 석동은 감독과 김광호 코치의 지도로 선수들을 육성하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지난 11월 21일 서울 맹학교에서 석동은 감독의 지도로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양궁 실력을 직접 선보일 수 있는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시각장애인 양궁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시각장애인(전맹, 약시) 선수 5명이 모두 안대를 하고, 활을 당긴 자세에서 과녁을 맞힐 수 있는 조건들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도 있는 멋진 양궁시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시연회를 찾은 장애인 체육계 내빈 및 시각장애인 관람객들이 직접 활을 쏘보는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시각장애인 양궁시연회에 풍성함과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음악회 연주자로 참여한 학생은 “많은 관객 앞에서 큰 박수를 받으며 연주하게 되어 긴장되었지만, 막상 연주를 해내고 나니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다. 음악회의 한 관객은 “음악회의 분위기나 완성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더욱 풍성해져서 보는 내내 큰 감동과 집중도를 끌어냈다.”라고 음악회의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며,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힙스터들이 모인 특별한 뮤직콘서트 제3회 설리번 음악회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다. 바로 ‘힙하다’ ‘힙스터다’ 라는 단어이다. 새롭거나, 특이한 것, 남다른 것을 찾아 지향하는 스타일 또는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용한다. 이러한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특별한 뮤직콘서트 ‘제3회 설리번 음악회’를 소개한다.

지난 11월 2일(금) 설리번학습지원센터 내 야외마당에서 ‘제3회 설리번 음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설리번 음악회는 본 센터의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시각중복장애학생 26명이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가족, 친구, 이웃과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피아노, 드럼, 클라리넷, 퍼커션 등의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클라리넷 독주_알라딘 OST ‘A whole new world’ ▲관소리 독창 ‘사랑가’ ▲드럼 독주_YB ‘박하사탕’ 및 방탄소년단 ‘I’m Fine’ ▲피아노 독주_‘놀람 교향곡’ 등 클래식부터 국악, 뮤지컬, 대중음악까지 31여 곡을 연주하였습니다. 이날 다양한 음악 장르 연주를 통해 교육생들의 끼와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3rd SULLIVAN CONCERT

*설리번학습지원센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행복한 크리스마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

산타클로스, 눈썰매, 따뜻한 벽난로,
빨간코의 루돌프, 성탄 트리 밑
쌓여있는 선물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행복한 기적을
꿈꾸곤 합니다.

실로암은 시각장애부모 슬하에 있는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행복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
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총 15명의 자원봉사자와 12명의
실로암 직원이 프로그램 진행을
도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실로암 직원들은 12월
21일 오전, 복지관에 집결하여 행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산타클로스 복장
차림으로 총29가정(아동 40명)가정에
방문하여 행복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자원봉사자들과
실로암 직원을 만난 아동들은 기쁨의
탄성을 터트리며 매우
즐거워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12월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소원을 빌었어요. 올해는
꼭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싶다고요.
저에게 산타클로스가 직접 찾아와
선물을 주다니 믿겨지지 않아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추운날씨에 마음이 훈훈해져
봄이 온것 같아요. 내년에도

자원봉사자로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실로암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카페모아 몽골 칭겔테점 개소식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비장애인과 똑같이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이사장 김선태)는 몽골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목) 몽골 울란바토르 칭겔테 지역 내 선거위원회건물 2층에 몽골 시각장애인 커피전문점인 '카페모아 칭겔테점' 개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카페모아는 세계 최초 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커피전문점으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 2009년 처음 개소하여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 내 성공사례를 모델링하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는 KOICA의 지원을 받아 지난 7월 20일에 몽골 최초 시각장애인 커피 전문점인 '카페모아 울란바토르점'의 개소에 이어 '카페모아 칭겔테점'을 개소하였습니다.

'카페모아 칭겔테점' 개소식에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최동익 사무총장을 비롯해 주몽대한국 대사관 신상균 참사관, KOICA 몽골사무소 김수양 부소장, 몽골 한인회에서 참석하였으며, 몽골 시설관리공단 온드람 소장, 몽골 장애인개발부 감치맥 소장, 인권위원회 밤바도르프 회장, 몽골시각장애인연합회 게렐 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카페모아 칭겔테점에 취업을 하게 된 바트에르덴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는 "사회에 나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을 할 기회를 주신 실로암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라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비장애인과 똑같이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몽골 24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22명의 훈련생을 배출하였다. 그중 19명이 전문 바리스타로 취업하였습니다.

실로암은 2019년을 시작으로 3년간 KOICA의 지원을 받아 인도네시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카페모아 3곳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도국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시각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디딤들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설레임, 놀라움, 그것이 바로 '봉사의 맛'

“ 직장과 가정을 잠시 잊고 뜻을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과의 모임이라 그런지 '부끄부끄(Book Book)' 모임이 정해지면 일단 마음이 설레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단 한번도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모임에 스스로 참여했고, 활동하는 시간 내내 즐겁고 보람을 느낀다는 것, 이점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



interview
외교부 인권사회과 사서사무관
이진숙님

공동분모

2018년 초반에 처음으로 봉사에 대해 뜻이 있는 외교부 사서직 동료들 몇 명이 모여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어요. 당시 사서라는 우리의 동일성과 전문성을 공동분모로 할 수 있는 동호회를 만들자는 일치된 의견으로 "부끄부끄(Book Book)" 봉사모임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여담으로 "부끄부끄(Book Book)" 뜻은 사서하면 떠오르는 "책(Book)" 과 봉사활동이 조금 어색하고 쑥스럽다는 마음으로 북과 부끄럽다라는 발음을 합쳐 만든 이름이에요.

꾸준한 발걸음을 위한 노력

오랜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 많은 심사숙고를 했어요. 저희 모임이 직장내 모임이고, 회원의 다수가 아이가 있는 엄마이다 보니 가능하면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 주말보다는 평일 퇴근 후에 활동할 수 있는 곳 등을 염두하며 봉사기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저희 동호회 회장님이 설리번학습지원센터 한국학생점자도서관을 소개하였고,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점자동화책 작업 외에도 일부 회원의 경우 시각장애인 청소년 마라톤 연습 지원 등 복지관 주관 외부활동에도 비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맛

점자 동화책만들기 정기봉사시 개인당 한글 입력 작업을 하는 교열의 경우 대략 2~3권, 점자출력물 도서부착의 경우 1권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내에 어느새 기량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에이스라 불리는 회원도 있습니다. 책을 한 권 한 권 완성할 때마다 아이들이 즐겁게 책을 읽는 상상하니 매우 설레이고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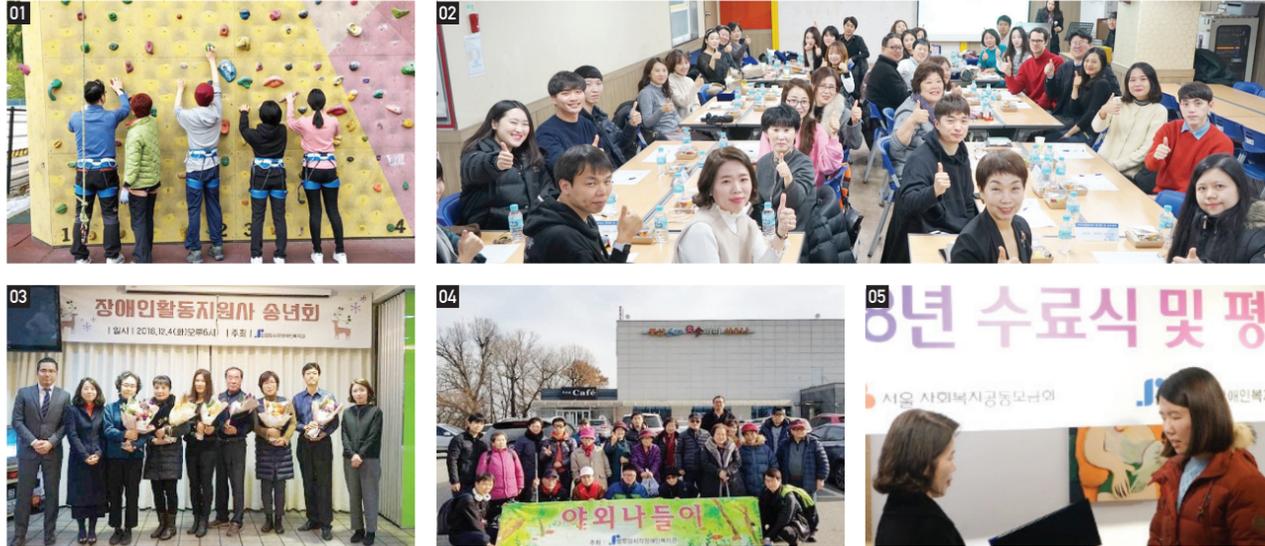
BOOK BOOK

'부끄부끄(Book Book)'는 외교부 사서가 주체가 된 동호회로 설리번학습지원센터 한국학생점자도서관 점자동화책 제작봉사활동 동호회입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

저희 외교부 사서 봉사동호회 부끄부끄가 앞으로 십년, 아니 수십년 이상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저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열정적이고 마음 따뜻한 회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설리번학습지원센터 한국학생점자도서관은 물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실질적으로도 보다 많은 보탬이 되는 동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관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❶ 스포츠중목체험-클라이밍(보라매공원 소재)_11월
- ❷ 우수자원봉사자 감사회,보수교육_11.24
- ❸ 장애인활동지원사 송년회_12.04
- ❹ 지역사회지원센터 야외나들이(파주 홍삼스파)_12.06
- ❺ 한식조리콘서트 수료식,평가회_12.07
- ❻ 제4차 고객모니터링단 회의 실시_12.11
- ❼ 주간보호센터 맛집탐방(곤지암 소머리국밥)_12.19
- ❽ 효명아카데미리더스클럽 송년회_12.20
- ❾ 실로암 전체직원 송년회_12.27



실로암학습지원센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 ❶ 관현맹인전통예술단_11월~12월
하나금융그룹 하나데이 초청,인천특수교육청 소속 교사 및 직원 대상,완도지역(완도중, 수산고, 완도장애인복지관) 문화나눔,정동교회 월요정오음악회,국립국악원 목요풍류 '이현아의 소리로 빛는 정가' 등의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 ❷ 효명음악팀 실로암안과병원 추수감사, 성탄절 초청공연 진행_9월~10월
- ❸ 하반기 원어민영어회화교실 문화수업_11.05
- ❹ 제2차 북콘서트(은상수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건강한 북콘서트)_11.17
- ❺ 2018 책 읽어주는 도서관 제1차(오후에 책 한 잔)_11.28
- ❻ 포스코대우 축각교재 제작 봉사활동_11.29
- ❼ 하반기 자립생활기술훈련 기초과정(제38기 기초재활훈련) 수료식_12.07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학습지원센터

음악재활아카데미 발표회,수료식_12.06

지난 12월 6일 삼모아트센터 라비니아 홀에서 음악재활아카데미의 발표식과 수료식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장구, 피아노, 성악, 보컬, 색소폰, 플루트, 소금, 하모니카 등 서양과 전통, 클래식과 실용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로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분들의 1년간의 노력이 한 자리에 모인 귀한 자리였고, 귀한만큼 대단히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설리번학습지원센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www.slv.or.kr/>



설리번 학습지원센터 * 직업재활시설

- ① 유아, 아동 가족체험(이천 테르메덴 온천리조트)_11.20
- ② 슈퍼창피아이와 함께하는 음악교육프로그램 특강_11.17
- ③ 점자동화책만들기 교실_11월~12월
- ④ 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 아우회(남이섬)_11.06
- ⑤ 제3차 직업체험(제과제빵사)_11.07
- ⑥ 하반기 직업훈련 수료식_11.30
바리스타카페창업(21기), 베이커리창업(12기), 여성안마창업(2기), 점역교정사양성(9기)
- ⑦ 제70차 취업자간담회_12.07
- ⑧ 근로지원인 제2차 보수교육,송년회_12.20

- ① 우즈베키스탄 안보건지원사업_10.28~11.04
 - ② 베트남 안마사 역량강화심화교육_11.04~17
 - ③ 미얀마 국제장애인 지원사업(시각장애인 정보접근지원) MOU 체결_11.06
 - ④ 라오스 안보건지원사업 MOU 체결_11.12~14
 - ⑤ 캄보디아 경제적 자립기반구축사업 기증식_11.16
 - ⑥ 필리핀 스마트폰 음성정보도서관 전문인력 국내 초청연수_11.21
 - ⑦ 라오스 안과의료진 국내초청연수_11.18~30
 - ⑧ 탄자니아 장애인지원사업 기증식_12.04
 - ⑨ 우즈베키스탄 재활의료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_12.07~15
 - ⑩ 캄보디아 안마사 역량강화심화교육_12.09~22
 - ⑪ 인도네시아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음성정보도서관 구축지원,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지원사업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_12.19~21
 - ⑫ 베트남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수료식
 - ⑬ 국제장애인지원사업 최종모니터링_12월
- 사업국가: 네팔,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탄자니아

국제 장애인지원사업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설로암 해피스토리



